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최근 동향

민경식*

1. 머리말

이 글은 신약성서 본문비평이 무엇이며, 또한 신약성서 본문비평 연구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루어져왔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¹⁾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한 특정 분야가 비판적으로 언급되기보다는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전체 역사와 최근의 동향이 소개될 것이다.²⁾

* 윈스터대학교 박사과정.

1) 이 글은 2002년 4월 10일, 연세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소 공개 강좌에서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다소 수정하고 확대한 것이다.

2) 전체적으로 본문비평의 역사에 대해서는 본문비평에 관한 대표적인 두 개론서인 Kurt Aland und Barbara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und in Theorie wie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zweite, ergänzte und erweiterte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와 Bruce M.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3rd enl.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를 주로 참고하였으며, 부분적으로 Eldon J. Epp, “Textual Criticism,” *Anchor Bible Dictionary*, vol. 6 (New York, 1992)와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에 실릴 예정이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Barbara Aland, “Textgeschichte / Textkritik (NT)”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최근의 연구 동향 가운데 『대비평본』(*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과 게르트 밁크(Gerd Mink)의 새로운 방법론을 소개하는 부분은 Barbara Aland, “Die Editio critica maior des Neuen Testaments: Ihre Anlage, ihre Aufgabe, die neu entwickelten Methoden der Textkritik,” 『성경원문연구』 7호 (2000): 7-23와 Gerd Mink, “Eine umfassende Genealogie der neutestamentlichen Überlieferung,” *New Testament Studies* 39 (1993): 481-499를 참고하였다. 그 외에도 개론적인 글로 J. Neville Birdsall, “The Recent History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from Westcott and Hort, 1881, to the present),”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ömischen Welt* II 26, 1 (Berlin / New York: de Gruyter, 1992): 99-197을 참고할 수 있으며, 특별히 조금 더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이보다 더 자세히 본문비평을 소개하는 단행본으로서 에어만(B. D. Ehrman)과 홈즈(M. W. Holmes)가 편집하고 바바라 알란트(Barbara Aland), 엘든 엡(Eldon J. Epp), 데이비드 파커(David C. Parker), 고든 피어(Gorden D. Fee), 엘리엇 (J. Keith Elliot) 등 현대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대표주자들이 글을 기고한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Contemporary Research:*

2. 본문비평의 과제 및 자료

2.1. 본문비평의 과제

본문비평은 본래 아주 단순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목적이란 여러 사본들을 비교하여 저자의 최초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원본문(Urtext)”을 유지하거나 재구성하려는 시도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본문비평이란, 한 저자의 글이 여러 사본으로 전해져 내려올 때, 사본마다 다르게 읽히는 구절(이것은 한 단락일 수 있고, 한 단어일 수도 있다)에서 과연 어떤 독법이 원저자의 것이었겠는가를 가려내려는 학문적인 노력이다. 이러한 본문비평은 성서학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것은 아니다. 호머의 『오디세이』나 『일리아드』 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본들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원시적인 본문비평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호머의 서사시들은 낭독되는 과정에서 또는 구전되는 과정에서 그 본문이 여러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이문들이 생기게 되었고, 필사되는 과정에서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판본들이 생기게 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이미 기원전 3세기에 호머의 작품들의 “원본문”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이것을 본문비평적 작업의 효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문비평은 성서학의 한 분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학문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을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크게 진보하였다. 물론 신약성서의 본문비평 작업은 오리겐, 제롬과 같은 교부들이 처음 시작하였으나, 이들의 작업은 과거 그리스인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학문적이고 본격적인 신약성서 본문비평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가장 오래 된 본질적인 과제는 바로 성서의 “원본문”(Original Text, Urtext), 엄밀히 말하자면 전승의 시작본문(또는 출발본문, Ausgangstext der Überlieferung)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비평은 이 첫 번째 과제 외에 또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본문전승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다. 즉, 성서본문이 어떻게 전승되고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사본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이다. 이 연구는 이미 17세기 후반에 이문들이 대량으로 수집되면서 시작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실제로 이 두 번째 과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본문비평의 이 두 가지 과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또 최근에는 어떤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2장과 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자료 및 사본 구분법

그리스어 신약성서 사본들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다소 불명료하다. 일반적으로 그리스어 신약성서 사본은 크게 셋으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파피루스 사본,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이다. 사본이 기록된 용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파피루스 사본과 양피지 사본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문자 사본이나 소문자 사본으로 부르는 사본들은 모두 양피지에 쓰여졌기 때문이다. 또 기록된 글자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파피루스 사본과 대문자 사본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대문자 사본과 소문자 사본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파피루스 사본은 대문자 사본과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성서 사본학에서는 사본들을 용지의 종류나 문자 형태 가운데 어느 한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사본들을 위와 같이 셋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편의상의 (불명료한) 구분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

파피루스는 주로 이집트의 나일 강 하류에서 만들어진 종이의 이름인데, 키가 보통 4-5미터, 크기는 6미터까지 되며 굵기는 사람의 팔뚝 정도 되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줄기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식물의 이름을 따서 파피루스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파피루스 줄기를 적당한 크기의 토막으로 자르고 (대개 30센티미터 정도), 이렇게 자른 토막을 다시 세로로 얇게 잘라내서 얇은 판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얇은 판을 가로 세로로 엇갈려 붙인 채 밀착시켜서 만든 종이가 파피루스인데, 이 용지에 기록된 사본을 파피루스 사본이라고 한다. 파피루스 사본에 쓰인 그리스어 문자는 물론 대문자이다. 이 용지는 4세기경 양피지가 널리 보급되어 주요 재료로 사용되기 전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물론 양피지가 4세기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기원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양피지는 빠르게는 2-3세기경부터 신약성서를 필사할 때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4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양피지는 소나 양, 염소, 영양과 같은 가축의 가죽으로

만든 종이이며, 파피루스에 비하면 내구성이 강한 장점과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 양피지에 대문자로 기록된 사본들을 대문자 사본이라고 부른다. 즉, 파피루스 사본이나 대문자 사본은 모두 대문자로 기록되었지만, 이 가운데 파피루스 용지에 쓰인 사본을 파피루스 사본으로 분류하고, 양피지에 대문자로 기록된 사본을 대문자 사본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어 대문자에는 띄어쓰기도 없었으며, 현대 그리스어에 있는 쉼표와 악센트도 없었기 때문에 사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기원 후 7-8세기 경 그리스어 소문자가 발명되면서 성서도 소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하였는데, 양피지에 소문자로 기록된 사본들을 소문자 사본으로 분류한다. 소문자의 사용으로 값비싼 용지를 아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빠르게 사본을 필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성서가 주로 인쇄됨으로써 필사본의 시대가 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 이후의 필사본도 발견된다), 이 이전까지의 필사본들이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주요 자료가 되는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요일마다 또는 주말마다 읽어야 하는 구절이 적혀 있는 성구집이 있었으며, 이상과 같은 그리스어 사본들 이외에도 고대번역본들이 본문비평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고대번역본들이 주로 직역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 번역본들을 토대로 그리스어 원본을 추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대 교부들의 성서 인용문도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초대 교부들의 성서 인용문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첫째는 그 독법이 사용된 연대와 지역을 상대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초기(빠르게는 2세기)의 독법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과제 하나: 전승의 시작본문 재구성에 대한 관심

원본문(Urtext)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엄밀히 말해서 가능해 보이지 않으나, 각 시대마다 나름대로 원본문에 가까운 본문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신약성서 본문비평은 ‘성서 저자들의 원본문’과 ‘전승의 시작본문’ 사이의 단절과 이 단절이 결코 본문비평적인 방법으로는 극복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본문비평은 “원본문”이 아닌 “전승의 시작본문”(der Ausgangstext der Überlieferung) 또는 간단히 “시작본문”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작본문은 원본문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원본문이 원저자가 실제

로 쓴, 혹은 받아 적게 한 본문을 가리킨다면, 전승의 시작본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본들의 출발점이 되는 본문이다. 따라서 이 전승의 시작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본보다도 원본문에 최소한 한 단계 가까운 본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본들의 뿌리가 되는 최초의 본문이기는 하지만, 결코 원본문은 아닌 그러한 본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작본문은 추상적인 또는 가상적인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문비평 이론과 방법론이 발전할수록, 그리고 초기의 사본들이 많이 발견될수록, 또한 사본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원본문에 더욱 더 가까운 시작본문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 가상적인 시작본문이 잠정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그리스어 신약성서(특히 네스틀레-알란트판 또는 『대비평본』)의 본문에 실려 있는 “(재)구성된 본문”(der konstituierte Text)이다. 예전에는 이 본문을 “표준본문”(Standardtext)으로 부르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이 재구성된 본문을 “가설적 시작본문”(der hypothetische Ausgangstext)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3.1. 본문비평 이전 시기: 수용본문(textus receptus)의 시대

15세기 중엽 유럽에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7년 경-1468)가 인쇄술을 발명한 후, 처음으로 출판된 책이 바로 『42행성서』로 알려진 라틴어 성서이다 (1455년경 완성). 반세기 이상이 지나 16세기 초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출판되었다. 그 사이에 이미 수많은 라틴어 성서와 히브리어 성서가 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의 당시 현대어 번역성서들이 출판되었음을 볼 때,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뒤늦은 출현은 우연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드디어 1516년 3월 1일 네덜란드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Erasmus von Rotterdam, 1469-1536)가 편집한 신약성서가 역사상 최초의 그리스어 신약성서로 출판되었다. 이미 1514년 1월 10일 히메네스(Francisco Ximenes de Cisneros, 1437-1517)가 먼저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작업을 마쳤으나, 인문학자였던 에라스무스와는 달리 로마 카톨릭 교회의 대주교였던 그는 교황의 출판 승인을 얻는 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했으므로 (실제로 1520년에 재가되었으며 아마도 1522년 이후에야 반포됨), 최초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출판본이라는 영예는 에라스무스의 신약성서에 돌아가게 되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 하나는 히메네스가 자신의 작업을 출판하는데 6년여를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라틴어 신약성서보다 약 60년 늦게 출판된 것과는 일맥상통

하는 것 같다. 바로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 성서였던 라틴어 신약성서가 그리스어 성서로 인해 위협받게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이 두 성서가 상대적으로 후기의 소문자 사본들을 중심으로 중세에 유행하던 비잔틴 계열의 본문을 자신들의 본문으로 채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에라스무스의 경우, 당시에 성행하던 라틴어 성서의 본문에 따라 자신의 그리스어 성서의 본문을 변경시켰으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계 22:16-21)의 그리스어 사본을 얻을 수가 없어서 라틴어 대본을 그리스어로 거꾸로 번역하여 실었다.

이 두 종의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출판된 이후 몇몇 사람들이 이 두 개의 성서를 기본 골자로 해서 각기 다른 그리스어 성서들을 내놓았다. 그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스테파누스(Stephanus 또는 Robert Estienne, 1503-1559)와 엘제비어 형제(Bonaventure & Abraham Elzevier, 17세기)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이다. 스테파누스는 자신의 그리스어 성서 3판(1550)에서 처음으로 본문비평장치를 사용하였으며, 4판(1551)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전해지는 형태대로의 장·절 구분을 하였는데, 이 장·절 구분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오늘날 성서에 절이 빠져 있는 경우가 발견되는 것은 이 당시 스테파누스가 절 표시를 한 이후에 본문비평적 작업으로 인해 그 절이 후대의 추가적 삽입으로 판단되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라이텐의 출판업자였던 엘제비어 형제는 자신들의 그리스어 성서 2판(1633)의 서문에서 성서를 많이 팔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수용본문”(textus receptus), 즉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본문”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수용본문”이라는 말의 기원이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시기까지의 모든 그리스어 성서들은 에라스무스의 본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수용본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에라스무스로부터 시작된 비잔틴 계열의 본문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된다.

한편, 이 시기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라틴어 신약성서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밀고 서서히 라틴어 성서의 권위를 넘어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고전적 본문비평의 시기: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일련의 학자들이 다양한 사본을 사용하면서, 이문(Varianten)이 폭넓게 수집되었다. 이로 인해 수용본문에 대한 도전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존 펠(John Fell, 1625-1686)은 1675년에 이미 100여 개의 사본들을 사용하였으며, 독일의 요한 자우버트(Johann Saubert, 1638-1688)는 이미 1672년부터 다양한 이문들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도전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직접적인 도전으로 발전되었다. 18세기 초 영국에서는 존 밀(John Mill, 1645-1707), 리차드 벤틀리(Richard Bentley, 1662-1742), 에드워드 웰스(1724년, Edward Wells) 그리고 다니엘 메이스(1729년, Daniel Mace) 등이 본문비평장치에 이문을 단순히 나열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수용본문을 교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어떠한 독법들이 수용본문의 독법보다 우수한지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뒤를 이어 요한 알브레히트 벵엘(Johann Albrecht Bengel, 1687-1752), 요한 야콥 뱃슈타인(Johann Jakob Wettstein, 1693-1754) 그리고 요한 야콥 그리스박흐(Johann Jakob Griesbach, 1745-1812)가 당시 여전히 지배적이던 수용본문의 아성에 본격적으로 도전하였다. 먼저 벵엘은 자신의 그리스어 성서의 본문으로 수용본문을 받아들였지만, 본문비평장치에 나타나는 모든 독법들을 그 가치에 따라 5등급으로 평가함으로써(예를 들면, 알파(α)는 수용본문의 독법이 아니면서 원독법이 확실한 독법을 가리키며, 베타(β)는 수용본문의 독법이 아니면서 수용본문의 독법보다 나은 독법을 가리키고, 감마(γ)는 수용본문의 독법과 비슷한 수준의 독법이며, ...) 어떤 독법들이 수용본문의 독법보다 우수한 독법들인지를 평가하였다. 그는 또한 필사가들이 어려운 본문 또는 이해하기 힘든 본문을 쉽게 풀어쓰는 경향에 착안하여, ‘어려운 독법이 쉬운 독법에 우선한다’는 본문비평의 고전적 원칙을 고안해내었다. 한편 뱃슈타인은 100여 개의 사본들을 분석하여 자신의 그리스어 성서를 출판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자신의 성서본문으로는 엘제비어 형제의 본문, 즉 수용본문을 실었으며, 단지 난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법들을 표기하였다. 그리스박흐 역시 자신의 그리스어 성서에서 수용본문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여전히 수용본문 전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수용본문을 더 우수한 본문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영국과 대륙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수용본문에 대한 강한 도전이 일어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본문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자신들의 본문으로 받아들이는 한계를 보였다.

3.3. 현대적 본문비평의 시기: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후반

까지

19세기 초엽이 지나고 중엽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수용본문의 권위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성서무오설의 중심에 서 있던 수용본문을 처음으로 완전히 극복한 학자는 독일의 칼 락흐만(Karl Lachmann, 1793-1851)이었다. 고대언어학 교수였던 그는 후기의 그리스어 사본들을 근거로 구성된 본문인 수용본문을 극복하고, 4세기말경 동방교회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본문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출판된 성서가 1831년 베를린에서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이 출판본은, 그 사용된 사본들이 매우 빈약하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수용본문을 자신의 본문으로 사용하지 않은 최초의 그리스어 성서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락흐만의 약점을 극복하고 그의 목적을 어느 정도 실현시킨 학자는 독일의 콘스탄틴 폰 티센도르프(Konstantin von Tischendorf, 1815-1874)이었다. 티센도르프는 신약성서의 원본문(Urtext)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신성한 임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평생을 오직 본문비평에만 헌신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는 시내사본(ℵ)을 발견하고 해독한 일을 들 수 있다. 또한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에브라임재생사본(C)의 지워진 본문을 복원해서 읽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재생사본(Palimpsest)이라고 하는 것은 양피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양피지 위에 원래 쓰인 본문을 지우고 그 위에 새롭게 다른 것을 쓴 사본을 말한다. 위에 새롭게 쓰여진 본문은 원래 쓰였던 것보다 후대의 것이기 때문에 본문비평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는 지워진 본문을 찾아 읽으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자외선을 사본에 비추어서 원래의 본문을 읽지만(자외선을 쏘이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잉크, 즉 지워진 본문의 흔적을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다), 티센도르프 당시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사본에 화학약품을 발라서 원래 처음 쓰였던 본문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두 권으로 된 자신의 최종 비평본(*editio octava critica maior*, 1869-1872)에서 대략 64개의 대문자사본들과 하나의 파피루스 그리고 많은 소문자사본들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고대번역본과 교부 인용문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티센도르프의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은 영국의 두 학자 웨스트콧(Brook Foss Westcott, 1825-1901)과 호트(Fenton John Anthony Hort, 1828-1892)의 그리스어 신약성서(*The New Testament in Original Greek*, 1881)이다. 제1권에서 이들은 현재까지도 매우 우수한 사본

으로 알려진 바티칸사본(B)과 시내사본(Σ)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본문을 구성하였으며 (시내사본보다는 바티칸사본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였음), 제2권에서는 역시 신약성서 본문비평에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자신들의 본문비평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로는 파피루스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4세기 후반의 두 사본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는 것과, 둘째로는 사본들을 직접 해독하거나 대조분석(Kollation/collation)하지 않고 다른 비평본들의 이문연구에 의존하여 연구하였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본문비평장치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비평본은 19세기 본문비평의 두 가지 과제(“원본문” 재구성 / 본문사 연구)에 가장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된다.

한편 에버하르트 네스틀레(Eberhard Nestle, 1851-1913)는 아주 간단하고 비학문적인 방식으로 본문이 결정된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편집하였다(Novum Testamentum Graece, 1898). 즉, 티센도르프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와 웨스트콧-호트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와 제3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처음에는 R. Fr. Weymouth의 2판(1892)을, 1901년부터는 B. Weiß의 그리스어 성서(1894-1900)를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의 본문을 비교하여, 다수결 원칙으로 본문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유치한 방법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스틀레판은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수용본문을 포기하고 네스틀레판을 공식적인 그리스어 성서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뒤이어 그의 아들 에르빈 네스틀레(Erwin Nestle, 1883-1972)는 아버지의 네스틀레판을 더욱 발전시켜 13판(1927)에서부터는 본문비평장치를 첨부하였으며, 1950년경부터는 쿠르트 알란트(Kurt Aland, 1915-1994)를 본문비평작업에 참여시킴으로써 네스틀레-알란트판(이로 인해 이 비평본의 명칭도 네스틀레판에서 네스틀레-알란트판이 되었다)을 학문적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이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Novum Testamentum Graece 27판, 1993)은 현재, 그 본문과 편집자들이 동일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y)의 그리스어 신약성서(Greek New Testament) 4판(1993)과 함께, 가장 권위 있는 그리스어 신약성서로 인정받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의 각국 성서공회들은 이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을 대본으로 신약성서를 모국어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이 네스틀레-알란트판은 그 이전에 20세기 초(1902-1913)에 나온 헤르만 폰 조텐(Hermann von Soden, 1852-1914)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폰 조텐의 본문비평장치는 오히려 네스

틀레-알란트판의 것보다 더 풍부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본문비평학자들은 폰 조텐의 비평본을 늘 참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독자적인 사본 명명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의 비평장치를 해독하려면 해독표(또는 해설서)가 있어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또한 그의 본문비평장치에는 오류가 많기 때문에 이 비평본을 사용할 때에는 늘 주의가 요망되며 항상 확인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레그(S. C. E. Legg), 포겔스(H. J. Vogels), 이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같은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네스틀레-알란트판의 권위를 뛰어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평본이 요구되는 것은 네스틀레-알란트판이 지니고 있는 한계 때문인데, 바로 이 새로운 작업이 지금 독일의 뮌스터 시에 있는 신약성서본문연구소(Institut für Neutestamentliche Textforschung)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4. 대비평본(Editio Critica Maior): 21세기

뮌스터의 신약성서본문연구소에서 작업 중인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네스틀레-알란트판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네스틀레-알란트판은 그 판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 첫째로는 관련자료를 폭넓게 개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네스틀레-알란트판은, 그것이 회중판(Handausgabe)이기 때문에, 본문비평장치에 모든 이문이 수록되지 못하고 편집자들의 판단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문만이 선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둘째로는 본문비평장치가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방대한 자료를 제한된 지면에 실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을 최대한 기호화하였는데, 이 때문에 해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문들을 한눈에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편집되는 것이 바로 『신약성서 대비평본』(*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이다. 현재까지 『대비평본』은 야고보서(1997)와 베드로전후서(2000)만 출판되었다. 요한서신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현재 신약성서본문연구소에서는 사도행전 작업이 한참 진행중이다. 이 『대비평본』에는 검증된 모든 자료가 수록될 것이며, 그 수록된 자료들은 최대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관될 것이다. 그리하여 본문비평에 있어서 외적판단기준을 최대한 강화시키는 작업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이와 더불어 본문의 전승사를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방대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공될 것이 기대된다.

이 외에도 네스틀레-알란트 28판이 한참 준비되고 있다. 이 28판(die

digitale Nestle)은 전산화되어 씨디(CD)로 나올 계획인데, 이 씨디에는 본문과 본문비평장치 이외에도 몇몇 파피루스 사본과 대문자 사본 등 중요한 사본들이 함께 수록될 것이다. 또한 출판본에 비하여 이문들을 비교하기 쉬울 것으로 기대되나, 기본적으로 이 씨디는 출판본과 병행하여 사용되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27판을 대치한다기보다는 보완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4. 과제 둘: 본문사에 대한 관심

4.1. 본문유형 연구

수많은 이문들의 수집됨에 따라 신약성서 본문의 역사, 또는 본문전승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본문사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과연 이 수많은 이문들이 왜 생겼으며,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되는 것이며, 또한 같은 이문을 가지는 사본들 사이에는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관한 물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본문 증거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서 벗어나, 각 사본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들을 상위 그룹 및 하위 그룹으로 구분한 최초의 학자는 독일의 경건주의자로도 잘 알려진 요한 알브레히트 벵엘(Johann Albrecht Bengel, 1687-1752)이다. 그는 사본들을 그 본문의 특성에 따라 크게 둘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콘스탄티노플과 그 일대에서 만들어진 후기의 사본들로서 “아시아 그룹”이며,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초기의 사본들 그룹인 “아프리카 그룹”이었다. “아프리카 그룹”은 다시 “알렉산드리아 그룹”과 “베투스 라티나(Vetus Latina) 그룹” 즉 “옛 라틴 그룹”으로 세분되었다.

요한 잘로모 쟈머(Johann Salomo Semler, 1725-1791)는 벵엘의 사본그룹을 조금 더 발전시켜 사본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의 기원을 연구하였다. 먼저 그는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기원을 오리겐에게 돌렸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생성되어 동방교회에서 주로 유포되었던 본문을 “동방본문”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서방교회에서 주로 유포되었던 본문을 “서방본문”으로 규정하였다.

요한 야콥 그리스박흐(Johann Jakob Griesbach, 1745-1812)는 쟈머의 이론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그는 쟈머를 따라 사본들을 세 그룹(“알렉산드리아 그룹”, “서방 그룹”, “비잔틴 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 그의 공헌이라고

한다면, 켈러보다는 더 섬세하고 자세하게 사본 및 교부들을 구분하고 각 그룹에 예속시켰다는 것이다.

브룩 포스 웨스트콧(Brook Foss Westcott, 1825-1901)과 펜턴 존 안쏘니 호트(Fenton John Anthony Hort, 1828-1892)는 기존의 세 그룹인 “알렉산드리아본문”, “서방본문”, “시리아(비잔틴)본문”에 “중립본문”(neutral text)이라는 그룹을 하나 덧붙였다. “중립본문”을 추가한 이유는 이 두 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했던 바티칸사본(B)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바티칸사본(B)과 시내사본(N)으로 대표되는 “중립본문”이야말로 원본문(Urtext)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소위 “중립본문”은 더 이상 하나의 본문형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중립본문”의 개념은 이 본문유형에 속하는 이 두 사본(B, N)이 원본문에 가장 가깝고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하는데, 실제로 4세기 후반의 두 사본이 원본문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전제가 초기 파피루스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오늘날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중립본문”의 개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들의 또 다른 이론인 이른바 “서방 비삽입구절”(western non-interpolation) 이론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이 이론 자체가 스스로 “중립본문” 개념을 약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증거들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문유형 연구에 있어서 이들이 가장 크게 공헌한 점은 비잔틴본문이 후기의 열등한 본문임을 확립시킴으로써 비잔틴본문의 시대에 결정적인 중지부를 찍었다는 점인데, 최근에는 이것마저 어느 정도 도전을 받고 있다. 이들이 비잔틴본문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헤르만 폰 조덴(Herrmann von Soden, 1852-1914)은, 독자적인 사본명명법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문유형에도 다소 생소한 이름을 붙였다. 그는 사본을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코이네본문(K-Text)”으로 웨스트콧-호트의 비잔틴본문과 일치하며, 둘째는 “이집트본문 또는 헤지키우스본문(H-Text)”으로 웨스트콧-호트의 “중립본문”과 “알렉산드리아본문”을 포함한다. 셋째는 “예루살렘본문(I-Text)”으로 웨스트콧-호트의 “서방본문”을 포함하며, 추가로 차후에 “가이사랴본문”으로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몇몇 사본들을 포함한다. 폰 조덴은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특히 코이네본문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분법에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코이네본문이 다른 그룹의 본문들과 대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 점과 예루살렘에서는 실제로 독립적인

본문유형이 생성되거나 발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본문을 하나의 독립적인 본문유형으로 규정하였다는 점 등이다.

1930년대 이후에 본문유형에 있어서 “가이사라본문”이 독립적인 본문유형으로 대두되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본문유형은 다음과 같이 사분법으로 정착되었다:

1) \wp ⁷⁵, B로 대표되며 또한 그 외에도 \wp ⁶⁶, \aleph , L(019), 33, 1739 등을 포함하는 “알렉산드리아본문”,

2) \wp ³⁸, \wp ⁴⁸ 등 몇몇 파피루스와 D, 그리고 옛 라틴어 번역본들(Vetus Latina)로 대표되는 “서방본문”,

3) “알렉산드리아본문”과 “서방본문”의 중간쯤 되는 본문유형으로 \wp ⁴⁵, W, Θ , 565, 700 등으로 대표되는 “가이사라본문”

4)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피루스 증거가 없고 A로 대표되며 대다수의 소문자사본들을 포함하는 비잔틴본문.

소위 “서방본문”이 실제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일반화되면서 “서방본문”이라는 말 앞에 항상 “소위”라는 말을 붙이거나 따옴표 안에 넣어서 쓰게 되었다.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가이사라본문” 앞에도 “소위”를 붙여서 쓰거나 따옴표와 함께 쓰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가이사라본문”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본들이 서로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본문형태일 수 없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리아본문” 역시 같은 이유로 따옴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네 가지 본문형태를 지닌 사본들을 각 그룹의 대표적인 대문자 사본의 명칭을 따라 B 계열 사본들, D 계열 사본들, C 계열 사본들, A 계열 사본들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법에 새로운 도전이 일어났다. 위의 구분법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첫째는 비잔틴 그룹을 제외하면, 다른 그룹들은 실제로 그룹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가이사라본문”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본들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본문” 유형을 대표한다는 사본들도 실제로는 서로 많은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사본들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각 그룹에 속하기 어려운 사본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초기 파피루스들은 어느 그룹에도 포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4.2. 연구 방법론

이에 새롭게 시도되는 방법은 사본들을 그룹으로 묶기보다는 각각의 사본들을 독립적으로 취급하면서 각각의 사본이 본문의 전승 역사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려는 것이다. 독일 뮌스터의 신약성서본문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게르트 밁크(Gerd Mink)가 개발한 이 방법은 새로운 계보적 방법론이라 불린다. 이 방법론은 웨스트콧-호트의 계보적 방법론과 비슷하면서도 또한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계보적 방법론이라고 불린다. 이 새로운 계보적 방법론을 소개하기에 앞서 웨스트콧-호트의 계보적 방법론을 먼저 소개하고 그 반작용으로 나타난 절충(주의)적 방법론과 합리(주의)적 또는 이성(주의)적 방법론을 소개하여야 할 것이다.

웨스트콧-호트의 계보적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외적증거 또는 외적판단기준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외적판단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내적판단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비평작업을 수행할 독법들이 정해지면, 내적판단기준 및 외적판단기준에 따라 어느 독법이 원본문(Urtext)의 독법을 반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판단해야 한다. 외적판단기준에 따른 분석에서는 어느 사본들이 우수한 사본들이며, 각 사본들의 특징 및 성격은 어떠한가, 한 독법을 지지하는 사본들의 분포는 어떠한가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내적판단기준에 따른 분석에서는 원저자의 신학과 문체, 필사가들의 습관, 독법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웨스트콧-호트는 물론 내적판단기준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그들은 나머지 독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독법이 원독법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였는데,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내적판단기준의 가장 훌륭한 지침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은 상대적으로 외적판단기준을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을 원본문의 독법을 가장 잘 보존하는 “중립본문”으로 규정하였고, 이 두 사본의 독법이 일치하는 경우 거의 그 독법을 자신들의 본문의 독법으로 선택하였다. 어느 독법을 선택할 때 최종적으로 그 사본들의 문헌적 가치에 대한 지식을 중요시하였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은 사본들을 네 종류의 본문유형으로 나누고 각 대표적인 사본들을 각 본문유형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계보도를 그려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론에 대한 회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첫째로 계보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둘째로 웨스트콧-호트의 외적판단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만을 우수한 사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적판단기준이 도외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학자들은 다른 방법론을 고안하게 되었는데, 그 방법론이 바로 절충(주의)적

방법론(eclecticism)이다. 이 방법론은 웨스트콧-호트가 강조하는 소위 “중립 본문”이 과연 실제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두 사본이 “서방본문”보다 우수하다는 그들의 전제가 과연 옳은가를 질문하면서, 이 전제는 그들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도전이 일기 시작하였다. 절충적 방법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외적판단기준에 대한 지식의 부족을 이유로 외적판단기준보다는 내적판단기준을 더 중요한 판단근거로 내세웠다. 극단적으로 이 방법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외적판단기준을 완전히 무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에 따르면 모든 독법은 그 독법을 포함하는 사본의 문헌적 가치에 관계없이 모두 원본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사본에 대한 아무런 선입견 없이 오직 그 독법만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은 합리적 절충주의(reasoned eclecticism)라는 방법론으로 그 강도의 수위가 교정되었다. 이성(주의)적, 합리(주의)적 방법론으로도 불리는 이 방법론은 원칙적으로는 내적판단기준과 외적판단기준의 조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본문비평의 실제에 들어가게 되면 내적판단기준에 따른 분석과 외적판단기준에 따른 분석 사이에 종종 긴장이 나타나며, 본문비평가는 이 긴장관계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만 함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이 방법론은 두 판단기준 사이의 균형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사본들의 문헌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턱없이 부족함을 이유로 외적판단기준보다는 내적판단기준을 여전히 더 우월하게 취급하여왔다. 따라서 이 방법론 역시 기본적으로 나머지 독법(들)의 발생원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독법이 원독법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한편 밉크의 “새로운” 계보적 방법론은 외적판단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계보적 방법론의 목적은 전승의 구조 또는 전체적인 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가장 위에 전승의 시작본문이 위치하고 그 밑으로 각각의 사본들이 가지치기를 해 나가면서 마치 피라미드식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을 그려내려고 시도한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사본이 어느 사본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또 사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이 원칙은 웨스트콧-호트의 원칙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웨스트콧-호트는 소수의 대문자사본들만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사본들을 포함한 밑그림을 그려내는 것에 실패하였다. 웨스트콧-호트가 이 그림을 만들어내지 못한 반면, 밉크는 『대비평본』의 도움으로 이 밑그림을 작성하였다는 데에 차이점이 있다. 또한 이 그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새롭다. 이 새로운 방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에

서는 지엽적 계보도를 그리게 된다. 이것은 전통적인 방법, 즉 내적, 외적판단기준에 따라서 모든 이문들을 분석하는데, 우선 “확실한” 것들만을 가지고 이문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계보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엽적 계보도를 그린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지엽적 계보도를 확대시켜나간다. 이렇게 하여 증거들(또는 사본들) 상호간의 일반적 관계에 대한 최초의 전체적 밑그림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동시에 결정하기 어려워져서 처음에 유보했던 이문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계보도를 수정하거나 보충한다. 이 결과,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원본문에 가까운 사본들(즉, Ausgangstext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본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 사본들은 본문구성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밉크의 새로운 방법은 각각의 사본을 본문유형 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승에서 각각의 사본의 위치를 개별적으로 확정시킴으로써 각각의 사본의 외적판단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밉크의 방법은 『대비평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검증된 모든 독법에 대한 전체적 개관이 없이는 밉크의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밉크의 방법은 다시 거꾸로 『대비평본』의 본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각각의 사본에 대한 강화된 외적판단기준)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새로운 방법론과 『대비평본』은 서로 보완하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내적판단기준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던 경향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적판단기준을 위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비평본』이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어서 완성되기까지 장시간(적어도 수 십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대비평본』은 야고보서(1997)와 베드로전후서(2000)만 나왔다. 이 두 편의 짧은 서신에서 이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이미 야고보서에서 두 군데, 베드로전후서에서 열다섯 군데의 본문이 변경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 방법론은 신약성서 본문비평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결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본문비평에 대한 관심이 대폭 줄었음은 사실이다.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현실이 아니다. 심지어는 본문비평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더 이상 본문비평적 작업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본문비평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웨스트콧-호트(1881) 이후 이미

120여 년이 지나도록 다양한 신약성서 비평본들이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이 크게 변경되지도 않았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문비평을 통해서 신약성서의 본문이 크게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또한 아주 사소한 변경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기존의 기독교신학이나 교리에 영향을 끼칠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일부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성서의 본문을 변경시키는 것을 마치 성서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본문에 대한 연구 자체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비평 작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아직도 여전히 발견되고 출판되는 사본들로 인해서 본문이 변경될 충분한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일련의 파피루스(파피루스 100번부터 116번까지)가 새롭게 출판되었으며, 실제로 본문판단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본문이 변경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실제로 『대비평본』에서 네스틀레-알란트판의 본문이 적지 않게 변경되었다. 비록 사소한 변경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학자에 따라서는 본문주석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또한 아직도 불확실한 본문들(예를 들면 네스틀레-알란트판 본문 가운데 꺾쇠로 묶인 본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 밖에도 본문 전승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Kyoung Shik M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not to make a critical investigation of problems or topics i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but to introduce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itself and its history up to the present.

The task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is not only to reconstruct the “text” (Ausgangstext der Überlieferung), but also to research its history. Although these two tasks can hardly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in practice, they will be dealt with separately in chapters 2 and 3 for convenience’ sake. The article will also introduce recent trends in moder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which include the new project of the Institute of New Testament Textual Research in Münster Germany, and the method newly developed by G. Mink of the same Institute.